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정희원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외국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좋다’거나 ‘지나친 외래어 사용을 삼가자’는 말을 하면서 ‘외국어’나 ‘외래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가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는지 구분해서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다. 교과서나 사전에서는 국어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또 바꾸어 쓸 수 있는 적당한 어휘가 없는 경우만을 외래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킨’이나 ‘키’, ‘루머’ 따위 낱말들은 외래어인가 외국어인가? 국어 단어로 인정된 말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하나, ‘닭고기’나 ‘열쇠’, ‘소문’으로 바꾸어 쓰기에도 마땅치 않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어사전을 보면 ‘외국어’는 ‘모국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외국어’는 글자 그대로 남의 나라 말이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것이다.)¹⁾ 그래도 여전히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판

6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정하기는 어렵다.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의 개념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러한 판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외래어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의외로 외래어의 정의나 개념 정립에 관해서는 깊이 논의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누구나 다 동의하는 외래어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된 상황에서 표기나 순화 등 실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외래어라는 말의 쓰임을 관찰해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정의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무의미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표기법이 외국어의 발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비난은 외래어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한국인들이 외국어 발음을 잘 못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외래어 표기에 ‘퐁’이나 ‘△, ♣’ 등의 기호를 만들어 쓰자고 주장하는 일이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외래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외래어는 이미 국어의 일부가 된 낱말이기 때문에 철자를 만들어서까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

-
- 1) 우리말의 ‘말’이라는 낱말이 가지는 중의성 때문에 외국어와 외래어가 종종 같은 층위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이들은 다른 차원의 용어이다. 외국어(foreign language)는 낱말뿐만 아니라 음운이나 문법까지도 아우르는, 체계로서의 ‘언어’를 가리키고 외래어(foreign word)는 외국어에서 들어온 ‘낱말’을 뜻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어를 외래어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다른 글들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는 ‘외국어’라는 용어를 ‘외국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용어의 불명확한 사용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문제는 이덕호(1980), 임흥빈(1997)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 2)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한글 표기에 사용되지 않는 문자들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채택한 적이 있다. 1948년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듣은말 적는 법」에서는 ‘△, ♣, 퐁, ♣’ 등을 외래어 표기에 쓰도록 하였다. 한글을 일종의 음성 기호로 쓰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 임흥빈(1997)은 외래어의 개념 자체를 크게 왜곡했다고 평가하였다.

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어사전의 뜻풀이대로 간단히 외국어와 외래어를 구분 짓기에는 석연찮은 면이 있다. 만약 외래어가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받아들여진 말들만을 가리킨다면 외래어 표기나 순화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이미 우리말 어휘 체계의 일부가 된 말이라면 굳이 다른 말로 ‘순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표기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굳어진 형태를 채택하면 되지 굳이 복잡한 표기 원칙을 따로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외래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적인 정의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컵라이크(cuplike)’나 ‘톱낫(topknot)’, ‘스웰른(swollen)’ 따위의 말들은 국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외국어인데도 외래어 표기법에 예시되어 있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에서조차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외래어 표기법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외국어 발음과의 차이를 문제 삼는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

이 글에서는 우리말 속에서 ‘외래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용어인 ‘외국어’ 및 ‘차용어’, ‘귀화어’ 등과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외래어 표기법은 그 성격상 외래어로 굳어진 말들뿐만 아니라 아직 국어화되지 않은 외래 어휘들과 외국의 인명·지명을 주요 대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그것은 외래어 표기법에 이미 우리말에 들어와 일반적으로 쓰이는 외래어의 표기를 정리하고 통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아직 국어화되지 않은 외국어 단어 도입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보기로 든 낱말들을 포함하여 몇몇 예들은 우리말에 도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예시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종래의 외래어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

2.1. 연구 초기의 외래어 개념

어떤 언어든지 다른 언어권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많은 외래 언어적 요소들이 들어와 쓰이게 마련이다.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중국어와 만주어, 몽골어 등에서부터 많은 어휘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 그 말들은 우리말 속에 충분히 녹아들어 더 이상 다른 언어에서 왔다는 의식이 없다. 우리가 흔히 외래어라고 하는 것들은 19세기 말엽부터 서양 문물의 전래와 함께 들어오기 시작한 말들로, 대개 영어를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의 말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30년대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다. 1930년대는 기본적인 어문 규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큰사전>을 편찬하는 등 우리말의 기초를 닦는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이다.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급증했다.⁴⁾ 그에 따라 외래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높아져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어 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외래어의 바람직한 수용 태도에 대한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외래어의 표준 표기법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외래어 사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래어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외래어 문제를 다룬 글 속에서 외래어 개념에 대한 당시 연구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1935년 <한글> 제3권 6호에 실린 이극로의 “외래어 표기에 대하여”는 외래어 문제를 다룬 최초의 글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 이극로는 1933년

4) 김민수(1973)에 따르면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 잡지 1면 당 외래어 사용량이 3.38 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외래어 표기에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오는 때에는 우리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어느 민족의 말에나 외래어를 자기화(自己化)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다.” 그가 비록 ‘우리화’나 ‘자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와 구분되는 개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외래어, 외국어 구분에 대한 좀 더 명시적인 태도는 은무암(193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외래어를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무조건 외래어를 배척하고 지나치게 순우리말만을 쓰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내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숭상함이 위험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처럼, 남의 것이면 비웃고 내 것이라면 무조건하고 아름답고 우수한 것이라 함도 또한 우스꽝스럽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로 외래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외래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은 외국어와 외래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할 때 간간이 타국말을 섞어 하면 그만 그 섞인 타국말은 외래어가 되는 것인 줄 아는 듯하다. 아니다. 그 타국말이 우리말과 같이 쓰이며 알게 되는 때 부터 처음으로 외래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우리는 그가 외래어와 외국어 개념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외국어의 낱말이 외래어의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말 속에서 널리 쓰여야 한다는 것과 그런 과정을 거쳐 국어로 정착한 외래어는 굳이 다른 말로 바꾸어 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1937년에 출간된 이종극의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은 13,000여 표제어가 수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래어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조선 외래어에 대하여’라는 서문이 실려 있어 당시 외래어 연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사전은 신문이나 잡지, 소설 등 각종 문헌을 조사하여 사전에 실린 외래어

표제어의 출처를 밝히고 용례를 제시하는 등 체재나 기술 방식이 상당히 과학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 [father: 아버지]’, ‘어머, [mother: 어머니]’, ‘허쓰반(드)[husband: 남편]’ 등 외래어라고 하기 어려운 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⁵⁾ 이종극(1937)은 이미 그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었던 듯 이 사전이 ‘외래어의 충실한 기록’임을 표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는 무사려했다고 할 만치 다수를 채록하였다. 그것은 본 사전의 실용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라는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또한 “나는 본서를 우리말 사전 편찬가에게 드리고 싶다. 본서는 물론 조선어사전과 그 사명을 달리하나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외래어는 range로 보나 frequency로⁶⁾ 보나 완전한 조선어사전에는 반드시 적을 둘만한 말들이 많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그는 외래어 사전의 표제어는 외국어 단어를 마구잡이로 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려를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사용 범위가 넓고 빈도가 높은 일부 낱말들은 국어사전에도 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1930년대에 이미 외래어는 외국어와 구분되는 개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래어는 국어 어휘의 일부로서 국어사전 표제어로 수록될 자격이 있으며 순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5) 『모던조선외래어사전』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표제어들은 단순히 영어 사전을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김세중 1996). 그러나 이는 당시 외래어, 외국어가 남용되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너-스 【nurse】 (1)乳母, 看兒婦(애기보는 이), 看護婦, 保護者. (2)保育, 管理, 養育.

미스언더스탠드 【misunderstand】 誤解(한다), 誤認(한다).

미스쨌지 【misjudge】 誤審(한다), 審判을 잘못한다.

6) 『모던 조선 외래어 사전』 서문에는 영어 단어를 문장 속에 섞어 쓴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written usage, obscure vowels 같은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sweet memory, stepping-stone 같은 일반어도 종종 나온다. 문장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不完全하나마 完成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모두 도리허 한개의 sweet memory다.”

2.2. 외래어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초기의 외래어 연구를 계승하여 외래어의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희승(1941, 1959) 및 김민수(1973)를 들 수 있다. 이희승(1941)은 앞선 연구자들이 막연하게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지었던 데 반해, 외래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외래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다. 김민수(1973)는 외국어가 우리말에 귀화하는 과정과 관련지어 외래어 개념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밖에도 배양서(1970), 유구상(1970), 강신항(1983) 등 여러 연구자들이 외래어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대부분 국어사전 식의 간략한 뜻풀이를 받아들인 채 외래어의 사용 실태나 수용 대책, 또는 표기법 고안이나 순화 방안 등 실천적인 연구에 주력하였다. 외래어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연구보다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희승(1941, 1959) 및 김민수(1973)의 연구를 통해 국어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져 온 외래어의 개념을 점검해 보고, 그와 같은 정의가 보이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희승(1941)은 외래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말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첫째, 순수한 외국어가 아닐 것. 둘째, 음운상으로 귀화한 것이라야 할 것. 셋째, 충분히 일반화되었어야 할 것. 이후 이희승(1959)에서는 외래어의 속성을 “본래는 외국어로서 어떤 민족의 언어 사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보급된 일, 그 발음이 외국어 발음대로 생소하지 않고, 받아들인 언어 사회의 음운 법칙에 의하여 동화된 일, 따라서 외국어를 모르는 일반 민중이라도 능히 발음도 하고 그 뜻을 이해도 하여, 외국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이 자유 자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외국어의 단어가 우리말에 들어와 쓰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외국어이며,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고유어처럼 쓰이는 말이 되어야 비로소 외래어가 된다는 것으로, 오늘날 외래어 정의의 바탕을 이룬다.

김민수(1973)는 우선 외래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 외래어의 정의(김민수 1973: 10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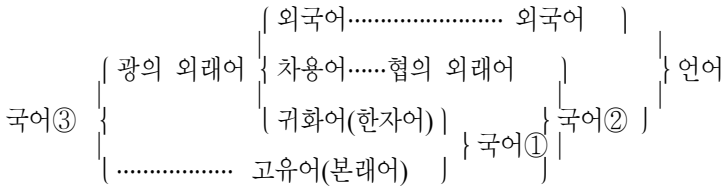
- 첫째, 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
- 둘째, 수입되어야 한다.
- 셋째,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
- 넷째, 사용되어야 한다.
- 다섯째, 단어라야 한다.

외래어가 다른 나라 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므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부터 다섯째까지의 특징은 외국어로부터 외래어를 구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속성들이다. 수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기원이 되는 언어를 떠나 우리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며,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국어의 어휘들과 함께 국어 문장 속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국어 생활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널리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라야 한다는 조건은 본래 언어에서는 문장이나 어구이더라도 국어 속에서는 단어의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외국어 단어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외래어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김민수(1973)에서는 다른 나라의 말이 유입되어 섭취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는 외국어라는 인식이 뚜렷한 단계, 둘째는 차차 익숙해지면서 두루 쓰이게 되고 생소한 의식이 없어지는 단계, 나중에는 외국어라는 의식조차 없어지고 우리말로 여기게 되는 단계, 맨 끝 넷째는 국어에 아주 융합되어서 고유어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단계이다. 외래어의 범위는 위와 같은 귀화 과정을 밟아 나가는 단계에 따라 외국어(미조화어), 차용어(조화어),

귀화어(융합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어는 발음이나 뜻이 다 순 외국어의 모습 그대로 쓰이는 단계의 말이고, 차용어는 발음이나 형태 등이 어느 정도 국어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 귀화어는 외국어라는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국어 사회에서 고유어와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쓰이는 말을 가리킨다. 위와 같은 설명 과정을 통해 김민수(1973)는 외래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한다.

(2) 외래어의 개념(김민수 1973: 107)



결국 김민수(1973)는 ‘외래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국어화한 말만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광의의 외래어와 협의의 외래어 개념을 구분한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외래어는 일차적으로 낱말의 기원이 외국어임을 지시하는 말로서 귀화어인 한자어와 차용어(협의의 외래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동화되지 않은 외국어 낱말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것을 그는 광의의 외래어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왔지만 상당히 동화되어 국어의 일부가 된 차용어, 즉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어사전 식의 외래어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와 같은 외래어의 개념 정의는 외래어가 국어사전 식의 정의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차용어의 뜻만 인정하였던 이전까지의 연구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광의의 외래어 개념부터 살펴보자. 외래어를 넓은 의미로 쓸 때에도 귀화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민수(1973)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귀화어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말에 들어와 국어의 일부가 된 낱말들이다. 어원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본래 외국어 낱말이었음을 알 수가 없다. ‘고무, 부처, 담배, 고추, 절, 붓, 떡’ 따위 낱말들과 한자어가 대표적으로 귀화어로 분류되는 예들인데, 오늘날 이들을 외래어라고 인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도 이 낱말들은 고유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런 귀화어를 차용어 및 우리말 속에서 산발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단어들과 함께 묶어 ‘외래어’로 지칭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 일부 연구 논문에서 외래어라는 용어를 단지 출처를 중시하는 의미로 쓸 때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의의 외래어 개념에 외국어를 포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외국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언중은 보통 우리말 속에 어찌다 한 번씩 섞여 들어오는 외국어 단어를 외래어와 구분 지어 인식한다.

협의의 외래어는 국어에 상당히 동화되어 국어의 일부가 되었지만 언중에게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이 있는 외래 어휘들, 곧 차용어를 이른다. 이러한 정의는 은무암(1936), 이희승(1941) 등의 기술을 계승한 것으로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외래어의 개념과 같다. 그런데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정의는 ‘외래어’의 실제 쓰임과는 거리가 있다. 만약 다른 나라 말에서부터 온 단어가 우리말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쓰여 음운이나 형태, 의미 등이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면 그들 부류만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외국어인지 아닌지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외래어가 진정 국어의 일부라면 그것을 국어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일찍이 은무암(1936)에서 지적하였듯이 외래어는 ‘남용’하거나 ‘범람’할 수 없는 것이다. ‘남용’하거나 ‘범람’함으로써 국어의 어휘 체계를 혼란시킬 염려가 있어 ‘정화’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는 ‘국어화한 외국어 단어’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아직 완전한 동화 과정을 거쳐 국어의 일부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말 속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외국

어에서 온 낱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 관련, 김하수(1999)에서는 외래어를 “국어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거나 국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배척되고 있는 짝 언어 요소”라고 규정한 바 있다.

2.3. 외래어와 차용어의 구분

(2)에 있는 김민수(1973)의 어휘 분류표는 용어가 상당히 비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개념이 모호하게 된 반면에 ‘차용어’는 협의의 외래어와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차용어와 외국어의 경계에 있는 낱말들은 적당한 명칭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외래어와 차용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래어와 차용어를 새 언어에 동화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이덕호(1980)가 제안한 적이 있으며, 특히 독일어학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우선 독일어의 연구 사례를 따라, 이 두 가지 용어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역사적으로는 독일어에서 ‘Lehnwort(차용어)’보다 ‘Fremdwort(외래어)’라는 용어가 먼저 생겨났다. Fremdwort는 ‘fremd(외래의, 외국의)’와 ‘wort(낱말)’가 합성된 말로 처음에는 외국어로부터 독일어에 수용된, 의미를 알 수 없는 낯선 단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외래어들이 점차 독일어에 동화됨에 따라 일부 외래어들은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언중에게 익숙하게 되었고 익숙해진 외래어를 가리킬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래어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Lehnwort’(lehnen 빌리다+wort)란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외래어란 표기법이나 발음에서 독어에 아직 동화되지 않은, 혹은 부분적으로만 동화된 외래 단어들을 가리키고, 차용어는 음운, 표기, 어미변화 등이 독일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외관상 더 이상 순수 독일어와 구분 지을 수 없게 된 단어들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⁷⁾

김원(2003)은 외래어 규정에 있어서 언중의 평가를 증시하는 폴란트(Volland, 1986)를 인용하여 외래어와 차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독일어에서 외래어와 차용어의 구분(김원 2003a: 518)

동시적 분석의 결과 (기원)	모든 자질을 포함하는 공시적 분석	범주
fremd (외래의)	fremd (외래의)	Fremdwort (외래어)
fremd (외래의)	heimisch (고유의)	Lehnwort (차용어)
heimisch (고유의)	heimisch (고유의)	heimisch Wort (고유어)
heimisch (고유의)	fremd (외래의)	Pseudo-Fremdwort (유사외래어)

위의 도표에서 폴란트(Volland, 1986)는 외국어에 기원을 둔 낱말이 언중에게 낯설게 느껴질 때는 외래어이고 익숙하게 느껴질 때에는 차용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낯설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가? 최경은(1994)은 뮐러(Müller)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동화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서법상의 특징, 음운 음성학적 특징, 문법 어형론적 특징, 의미 어휘론적 특징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어 단어가 독일어에 들어오면 철자나 발음, 강세 따위가 독일어 식으로 변화하고, 성·수·격 등 독일어의 문법적 특징을 부여받거나 독특한 어휘 의미를 획득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동화 과정을 겪은 어휘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므로 차용어가 되고, 동화되지 않은 어휘들은 여전히 외래어로 분류된다.

우리는 차용어와 외래어의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어학에도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외래어라는 용어가 ‘국어에 동화된 외래어휘’에서 벗어나 다른 대상을 가리키게 된 데에는 아직 완전히 국어화되지

7) 차용어(Lehnwort)는 모국어화한 외래어다. 차용어는 그 단어의 외국어적 특징을 외관상 잃어버렸으며 독어화되었다. 차용어는 독어와 자유로이 결합하여 파생어나 복합어를 생성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최경은 1994: 406).

는 않았으나 고유어와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널리 쓰이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들에게 적당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민수(1973)에서 보았듯이 외국어 단어가 우리말 어휘가 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동화의 과정 중에 있는 많은 어휘들을 무시한 채 외국어와 외래어로 단순히 구분한 것이 ‘외래어’의 지시 대상을 확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래어 개념의 재정의

이제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외래어의 개념을 새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외래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정의되어 왔다. 외래어는 곧잘 외국어와 비교하여 기술되었는데, 외국어와 외래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외래어는 국어화한 말이며 외국어는 그렇지 않은 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임홍빈(1997)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는 기준으로 제시한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쓰임의 조건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담화에 한두 번 사용되고 말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동화의 조건은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화는 대개 음운, 문법, 의미의 세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 음운상의 동화는 외국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와 쓰일 때 그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영어의 [f]나 [r] 소리가 우리말에서는 ‘ㅍ’, ‘ㄹ’ 소리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문법 면에서의 동화는 원어에서 가졌던 성, 수, 격, 호응 관계 등의 기능이 없어지고 우리말에서 새로운 문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해서 쓰는 ‘shirt’가 국어에서는 항상 복수 형태인 ‘셔츠’의 형식으로만 사용된다든가 외국어 단어가 우리말에서 형용사나 동사 구실을 할 때에는 항상 ‘-하다’ 형태로만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의미 면에서의 동화는 우리말 속에 들어와 그 고유한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국어에서 ‘boy’가 식당이나 호텔의 종업원을 뜻하거나 ‘madame’이 술집이나 다방의 여주인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외래어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시각에서는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부류만을 외래어로 인정하고 그 밖의 것들은 ‘외국어’로 분류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로 인식하는 어휘들은 국어로 굳어진 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 국어 속에 널리 쓰이기는 하나 동화의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한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오히려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데도 국어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순화 대상이 되는 어휘들에 초점이 놓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깡, 와인, 리더, 보스’ 따위 말들은 흔히 사용되기는 하나 영어 단어의 뜻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 분화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 국어 어휘로 보기는 어려운 말들이다. 이러한 낱말들은 종전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어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래어로 인식된다.

김문창(1989)에서는 우리말에 동화되지 못한 채 사용되는 외래 어휘들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조사 결과를 일부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국어와 외국어⁸⁾ 사용 비율(김문창 1989: 646~647)

감각	16%	84%	센스	상자	13%	87%	박스
색안경	12%	88%	선글라스	열쇠	17%	83%	키
공책	4%	96%	노트	탁자	18%	82%	테이블

위의 표에서 보면 같은 뜻을 가진 말 중에서 ‘외국어’의 사용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 현실을 무시하고 ‘공책’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사용되는 ‘노트’를 국어 생활과는 상관없는 외국어 단어로 고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민수(1973)에서 외국어는 발음이나 의미가 다 순 외국어의 모습 그대로 쓰이는 말이라고 한바 위의 단어들은 그러한 외국어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위에 예시된 단어들은 국어에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동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외국어의 발음이 우리말의 소리로 대체되었으므로 음운적으로는 완전히 동화되었다. 우리말 문장 속에서 명사 구실을 하며 자유자재로 사용되므로 문법적인 동화도 이루어졌다. 다만 같은 뜻을 가지는 낱말이 이미 국어 속에 있다는 점 때문에 국어 어휘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 말들의 쓰임을 살펴보면 미세하지만 의미적인 분화도 상당히 진행되는 중이다. ‘열쇠’와 ‘키’를 비교해 보면 ‘키’가 지시하는 범위가 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는 주로 자동차 열쇠를 가리키고 현관이나 방문 열쇠의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나, 책상이나 옷장 같이 비교적 작은 물건을 여는 열쇠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예비 차용어’ 범주에 속하는 낱말들을 무조건 외국어라 하여 배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8) 김문창(1989)에서는 ‘외국어’ 대신 ‘의사외래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사외래어’는 우리말에 동화되지 못한 채 사용되는 외래 어휘를 지칭하는 말로 외래어에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이 글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어’로 인용하였다.

무엇보다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의 개념에는 아직 우리말 속에서 그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이러한 어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외래어라는 용어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일치시켜 정의하려면 국어로 굳어진 낱말뿐만 아니라 동화 과정에 있는 외래 어휘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의 구분

	외국어 어원	널리 사용됨	동화 과정 완료	언중의 외국어 인식
외래어	+	+	±	+
차용어	+	+	+	+
귀화어	+	+	+	-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는 모두 외국어에서 와서 국어 속에 널리 사용되는 낱말들이다. 그중에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고, 또 일반인들에게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이 없이 고유어와 똑같이 취급되는 말들은 귀화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언중이 외래 어휘임을 인식하는 나머지 낱말들은 모두 외래어이다. 그들 중에 동화 과정이 완료되어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말은 따로 차용어라는 말로 구분해서 지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리하였지만 특정한 낱말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또는 차용어인지를 실제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동화의 조건’과 ‘쓰임의 조건’이라는 기준이 명백하게 제시되었으므로 이 기준에 비추어 판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때 해당 어휘가 ‘쓰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문헌과 면접 조사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각 세대와 계층에 두루 사용되는 외래 어휘들은 ‘예비 차용어’의 개념으로 외래어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이다. 그 중 의미 분화 등 동화 과정을 거쳐 우리말 어휘의 일부가 된 것들은 다시 차용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차용어로 인정되면 국어사전 표제어로 실리게 될 것이며, 국어 순화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83), '외래어의 실태와 그 수용 대책',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김문창(1989), '의사외래어의 문제점', "이정 정연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 김세중(1990), '외래어 표기의 변천과 실태', "국어생활" 23, 국어연구소.
- 김세중(1996), '서양에서 들어온 말', "한국 신문 방송 말글 변천사(하)", 한국 교열기자회.
- 김 원(2003a), '독일의 언어 정화 운동과 그 한계', "독일어문학" 20, 한국독일어문학회.
- 김 원(2003b), '외래어 차용의 유형과 원인', "독일어문학" 23, 한국독일어문학회.
- 민현식(1998), '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 한국어 의미학회.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 은무암(1936), '외래어 처리 문제', "한글" 4-8, 한글학회.
- 이극로(1935), '외래어에 대하여', "한글" 3-6, 한글학회.
- 이덕호(1980), '언어 차용에 관한 연구1', "한글" 169, 한글학회.
- 이종극(1937), "모던조선외래어사전", 한성도서주식회사.
- 이희승(1941), '외래어 이야기', "춘추" 2·3집, 이희승(1959) 재록.
- 이희승(1959), "국어학 논고" 제1집, 을유문화사.
- 임홍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글맞춤법 무

22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2004년 여름)

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최경은(1994), ‘독어에 있어서 외래어 개념’, “독일문학” 52, 한국독어독문학회.